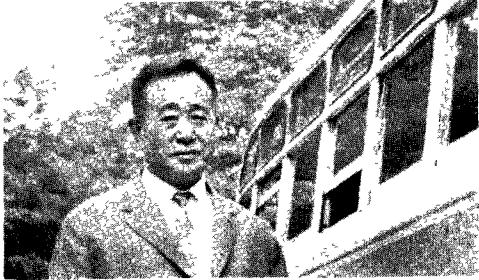


養鷄에 살고 지고

합일 농장 주예한씨를 찾아서

취재 : 박 태남



“왜 산에서 사느냐면
그저 웃을 뿐
복사꽃
두둥실 물에 실려 떠가니
여기는
이 세상이 아닌 것을....”

얼마나 주예한씨(주예한씨라고 쓰기가 거북하다. 그 분은 어쩐지 신비스런 분위기가 감돈다)를 만나려 했는지 모른다.

—무슨 누베 성공이야, 그저 닭하고만 사는 노미... 그저 닭하구만

그런 대답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하나가 주원술씨를 만났다. 주예한씨의 장남—주원술씨에게 겨우 아버지 주예한씨의 일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

그저 닭기르는것이 좋았기에

—아버님은 세상일을 모르십니다 아니, 알려고 하시질 않아요 그저 닭하고 일평생을 지내신 분이지요.

양년 69세 일평생을 양계에 몸담아 왔단다. 그이 말로. 왜사느냐 묻는다면 양계 때문이라고 대답할 만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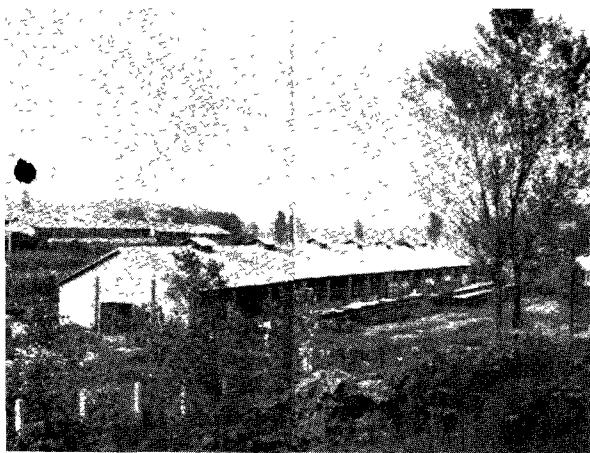
—양계의 원로라고 들었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셨던가요?

판에 박힌 질문이었다 주원술씨는 웃으면서 어린 날의 기억을, 혹은 아버지 주예한씨에게서 들은 옛이야기를 더듬어 가며 얘기를 시작했다.

주예한씨는 함흥농업전문학교를 다녔다. 그러면서 웬지 닭기르는 것에 취미를 붙여 한두 마리 취미로 닭을 길렀다 동네엔 양계를 하는 일본인이 있어 틈틈히 닭기르는 것을 높여겨 보곤 했다. 학교를 졸업해서도 취직할 생각이 없더란다 17세때인가? 닭200마리를 구입했다. 그것은 처가집이 정미소를 경영했기 때문에 그 부산물을 이용했다. 나라양계라고나 할까? 낱곡양계라고나 할까? 그저 그런 양계가 재미있었던더란다. 그러나 그것이 운이 좋아선지 수수가 늘어나자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홍남 영대리는 제법 닭기르는 사람이 많았다. 양계단지라고나 할까... 그래서 영대리로 이전하여 양계규모를 늘렸다 규모4,000수 —그 때 영대리 전체 사육규모가 15,000수정도였으니까 꽤 큰 규모였다 닭은 일본 나고야에





갈매리 일대의 양계장은 이제 하나의 사단처럼 버티고 있다.

이 사단의 총수 이제 69세로 古稀를 맞는 주예한씨…… “무슨 누메 성공이야, 그저 닭이 좋아 닭하고만 사는 노미…

”하며 취재를 거부해오시다가 드디어 기자의 끈질김에 손을 드셨다. 여기에 養鷄에 살고지는 한 人間의 단편들이 우리를 감동케 한다. <편집자 주>

서 가져왔다. 「아도낀손」 「한손」이라 했던가 …? 그런 이름의 닭을 가져오는데 배로 3 ~ 4일 걸렸다. 일본에서 떠날 때 영대리로 전보를 치면 입주준비가 완료되곤 했다. 물론 평사양계였으며 산란율은 60%가 고작 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렇게 순탄하게 양계를 해 왔는데 대동아 전쟁이 터지고 국가적으로 식량난에 부딪치자 닭사료구하기가 힘들어 졌지만 어묵이니 정미 소부산물등으로 간신히 버텼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도 있다.

병이들면 그대로 태워 땅에 묻던 시절

당시에는 질병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1941년이던가? 1942년인가에 페스트 병이 번져 닭이 전부 죽었던 일이 있다한다. 그것이 뉴캣슬로 여겨지지만 그때에는 페스트 병이라 했다한다. 그때 일본인 관리들이 와서 큰 땅구덩이를 파서 모두 불태워 묻었다.

—당시에 아버님(주예한씨)은 어떻게 질병에 대처했던가요?

—아버님께서 가장 늦게까지 양계를 하셨는데 그것은 1개군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그 계군은 모두 도태를 시키셨다는군요. 지금도 말씀하시지요 뉴캣슬은 참 무서운 병이라면서 양계질병은 치료보다 방역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아버님 생각이십니다 언젠가 청주에서

병계를 내다 팔다가 문제가 생긴 일이 있지요? 참 열들이 빠진 행동들입니다. 우리나라 양계를 위해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선 안되겠지요.

갈매리에 채란양계로 정착하다

6. 25가 터지자 월남을 했습니다. 실향민이면 다 겪는 그런 고초를 겪었지요 거제도로 부산으로 서울로… 동대문시장에서 전어물 장사를 얼마간 했었는데 마음은 항상 다시 양계를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향사람인 서선희씨를 만났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양계가 제일 낫다는 것이 아버님 생각이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양계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서선희씨와 동업으로 화양리 벽돌공장자리에다 다시 양계를 시작했던 거지요. 사육규모가 커지자 답십리 86번지로 이전했습니다. 그곳이 본적지가 된 곳입니다만, 땅을 그때 계분만 주기로 하고 임대했는데 얼마안가 그땅을 사들이기에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양계로 안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서선희와 서로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때가 1957년이던가요? 아마 그때부터 갈매리가 채란양계 단지로 정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다지고 다진 양계

—현재 양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30,000수 정도지요.

—30,000수라면...

—예, 30,000수라면 그리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3 만수는 몇백마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지고 다져서」 3 만수가 된 것이지요. 아버님은 이제 「느낌」으로 양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규모를 확장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연로하셨으니까... 편안한 생활을 하셔야지요. 작년에 (76년) 여주에 과수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 뿐입니다. 얘기는 ...

투기성이 강한 양계에 성공했다면 얼마나 쓰라린 고생이 있었을까만 그런 대목은 없다. 어쩌면 운이 좋았는지도 모른다. 기자는 기대에 좀 어긋난 것 같은 느낌으로 갈매리 할일농장을 나섰다.

청량리에서 퇴계원, 광릉내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멀어진 곳—갈매리. 다음 정거장이 「담터」라는 곳. 사방이 맨 양계장이다. 통칭 갈매리 양계부락. 시외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뾰얀 먼지가 머리를 뒤덮는 곳일 뿐인데...

다른게 없어요... 그저 부지런하면

기자는 편집실로 돌아오다가 안되겠어서 목동 주예한씨집을 물어 물어 찾아갔다. 우람하고 깨끗한 양옥집. 그리고보니 갈매리 할일농장은 양계장이 아니라 무슨 큰 농장같았다. 주예한씨의 성격의 일면을 보는것 같았다. 응접실에 들어가니 무슨 노인회에서 받은 감사패가 한쪽에 곱게 놓여 있었다. 할머니와 (주원술씨어머님) 몇 마디 얘기를 주고 받는데 주예한씨가 돌아왔다. 기자를 보더니

—젊은 사람이 꽤 끈질기구먼... 양계가 좋아서, 배운게 양계뿐이라 평생을 이걸로 살아왔을 뿐인데... 성공은 무슨누예 성공인가 —

몹시 피곤해 보인다. 그러나 눈가엔 잔잔한 애정이 스며있는 것 처럼 느껴졌다.

—정말이야. 남달리 한게 없어요. 특수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지런히 성의껏 하면 되는게지 다른 뾰족한수가 있는가?

여하간 지금은 양계가 수월해졌다.

—양계역사에 대해서? 몰라... 그저 무심히 양계만 했을뿐야... 죽 평사로 키우다가 59년인가 답십리에 있을 때 빠다리로 했고 66년 신내동에서 케이지로 했을거야요. 4.19나기 한두



외국계가 처음 들어올 때 계약모습. 좌로부터 김영희, 이정희, 통역 세이버회장 부인 카나다 국회의원 이재근, 이필용, 주예한, 박도현 씨의 모습이다.

해전인가 축협에 군납을 했었는데 정인해씨가 우리 계란을 가져갔지요 그때 계란이 더러우면 안되서 밤새며 빼퍼로 알을 한개씩 닦던 기억이 나...그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 (부인을 보고 하는 말). 또 김영회 씨와 개인적으로 안양에 뉴캐슬백신을 주문해서 접종한때도 있었고... 고생으로 치면 양계하는 사람이 어찌 고생을 안했겠냐만 9.28수복후 화양리나 담십리에서도...그때 돼지우리보다 못했어..그저 우리먹는 거보다 닭을 먹이려고.. 또 그게 재미도 났지..그리고 지금의 서울시 청지하실에 축산협동조합(?) 인가가 있었는데 계○○라는 사람이 있어 병아리를 부탁했는데 솟병아리를 내 모르게 뭉턱 섞어서 주는 바람에... (감정이 갑자기 격해졌는지 말문이 자주 막힌다). 내가 갈매리로 들어가기전에 낚칙과 하이라인 그리고 셔이버도 외국에서 들여왔었지요 61년인가..그때쯤인데 이필용, 박도현, 김원복, 이정희씨등 과였는데 그때 부화도 했지 우리 양계장에 공급용으로... 솟병아리를 길려 영계로 팔기도 했는데 수입이 괜찮았었고..하여간 지금은 양계를 하는데 예전과 달리 무척 수월합디다.

우리 형제들은 모두 양계 가족

—주사단? 하하하(기자의 주사단이란말에 아주 즐겁게 웃으며)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요. 내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모두 양계를 해...내가 권했으니까, 공무원도 했고, 회사원도 했고...하지만 양계를 권했지 자유당시절 계란 1개에 35환인데 쌀한말이 4,000환 정도니까 계란 100여개면 쌀 한말이거든? 한 5식구는 닭500수면 먹고 살았지. 그래서 아들들도 모두 양계를 시켰지. (주예한씨의 형제들 —주몽한, 용한, 명한, 운한, 문한, 병한, 그리고 아들 —원술, 원근, 도은이 모두 양주군 갈매리일대, 하점리, 복지리에서 3~4만수, 모두 3~40만수의 채란양계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 모두들 잘해. 배운 사람들은 달라. 양계도 역시 배우면서 해야지. 한종연씨, 유영종씨, 한국현씨,

한승현씨도 나 때문에 양계를 해서 잘들 살아

닭을 다루는데는 오직 진실만이 이제는 협회 중심으로 뭉쳐야

—앞으로 우리나라 양계는 좋아. 다만 너무 눈앞에 이익만 노리고 한다면 안될거야 동물과 같이 생활하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되지. 이젠 협회같은 기관도 있고 해서 양계인은 그리로 뭉쳐야 될거야. 개인의 사업이전에 양계산업으로 성장했으니까...내경우 76년엔 청량리계우회를 조직했어..정보가 필요해진거야. 혼자선 이젠 힘들어..나야 늙어서 기력이 없지만 협회의 필요성은 나뿐이 아니라 모두가 느낄거야. 모두 참여하고...그래야 그 기능도 잘 살릴텐데.

후기—양계는 그의 신앙이었다.

여러가지 여담을 나누고 나오려할때는 주예한씨는 젊은 사람과 같은 표정이 되어 있었다. —이거 미안하구먼. 젊은 사람을 고생시켜서... 하지만 고생을 낙으로 알고 양계를 한다면 반드시 중요한 생활을 누릴수 있을꺼야. 잘 가게 젊은이...

양계인생—인생을 통틀어 양계에 바친 주예한씨, 이제 그는 중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뒷산(봉화산)에 산책을 나가 친구들과 담소를하고 7시쯤 농장을 한바퀴 점검도하고 여주 파수원엘 들리기도 하여 저녁 7시쯤 귀가하는 생활이 그의 일과가 되었다. 때로는 자금이 떨려 눈물을 흘리며 자금조달에 안간힘을 썼었고, 때로는 농장판리가 부족하여 아들, 며느리까지 혼냈었던 주예한씨. 그는 이제 69세. 둘이켜 생각해보면 양계는 그에게 있어 돈벌이였다기보다 생활의 보람이었고 신앙이었다. (우리농장에서 일하던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그래서 한2,000수 떠어줄 작정입니다) 하던 주예한씨의 모습에서 기자는 일생을 닭과 더불어 살아온 한 인간에의 숭고함을 느낀다. 부디 편안하시라.*